

2017년 5월 18일, 안덕면 동광리 신원홍 씨 댁, 김승연 조사.
 신원홍(남, 1940년생, 안덕면 동광리)

- 줄거리: 비오는 날 마당에서 어른들이 개구리를 보고 “톡톡 뛴다.” 하니까 그 말을 듣고 옆에 있던 어린아이가 “톡톡 뛴다.” 하고 따라 말했다. 또 “두리두리 살핀다.”라고 하면 아이는 “두리두리 살핀다.”라고 따라 말했다. 그러자 그 집에 도둑질 하러 간 도둑놈이 ‘아이가 자기들을 보고 있구나.’ 생각하고 그 집에 도둑질 하러 가지 못했다.

[제보자] 옛날 어른덜 앓앙으네 우스갯이 얘기 하는 거 보면은 저 어린 아이덜한테 요즘 동화책 저, 읽듯이 마당에이 비오는 날 부글레기 나지 않습니까. 게민 이게 이저 게구리가 톡톡 뛰어가니까 아이게

“톡톡 뛴다.”

헉니까 저 뭘 말인고 헉니까 아인 율에서 잇당

“저 보라 저 게구리 톡톡 뛰었이네.”

헉니까 아이 겐 뛰다그네 또 뛰젠 헉민 납작 엎더지지 않습니까게,

“납작 엎더진다.”

헉니

“납작 아이.”

그거 그런 대로만 늘 헉 거라마썸

“두리두리 살핀다.”

용 뛰젠 헉민 영 헉지 않습니까 그자, 그걸 곤 거라. 그뿐이라. 헤똥 가 부니까. 그 아이가 밤이면

“톡톡 뛴다 납작 엎더진다. 두리두리 살핀다.”

헉니까 도둑놈이 그 집에, 들라고 헉는디 그 소릴 헉니까 아이 뵈구나. 경 헤가지고 도적질 안 헉고 가 불었다 그런 얘긴 들었수다. 게난 톡톡 뛰울 적엔 톡톡 뛰니까

“톡톡 뛴다.”

영 헉난 납작 엎더진다 헉니까 영 헉 이젠 사람 시냐 엇이나 곱아둬어. 바림생이나 흘 땀

“납작 엎드린다.”

헉니까 지 헉는 양 톡 7뜨거든, 이거 또 슬퍼 가니까

“두리두리 살핀다.”

헉니까 비제기 이제 뵈구나 경 헉 이젠 도적질을 안 했다 헉는 얘기가 잇고.

- 핵심어 : 개구리, 어린 아이들, 도둑놈, 비, 마당